



▷ 보도일: 2017년 6월 12일(월)

▷ 자료배포: <http://tongil.snu.ac.kr>

▷ 문의: 02) 880-4052~4

▷ 작성: 김병로 교수

---

## 서울대학교,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공동심포지움 개최

### IPUS,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국내·외 정치경제적 조건 진단과 방법 모색

#### 서울대 내 인문·사회 분야에서 공동학술회의 지속적인 개최 예정

-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(원장 정근식)은 6월 13일(화) 오후 2시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개성공단지원재단과 공동심포지움을 개최한다.
- 2017년 3월 28일 서울대 내 통일평화연구원, 인문학연구원, 국토문제연구소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MOU 협약을 맺고, 공동연구 및 학술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하였다. 이번 학술회의는 유엔 등 국제사회 제재가 강도 높게 진행되는 가운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국내외 정치경제적 조건을 진단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첫번째 자리이다.
- 제 1 세션에서 남북경제 협력을 위한 환경 진단으로 국제적 환경과 조성에 관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수호 박사가 발표하며, 국내적 환경과 조건에 관해 강원대학교 박영호 교수가 발표한다. 제 2 세션에서는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한 주요 쟁점과 과제를 법적인 부분에서 서울대 이효원 교수가 발표하고,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가 발표한다.
- 개성공단에 관해 인문학연구원과 국토문제연구소도 공동학술회의를 추후에 개최할 예정이다.

끝.